

#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실질적인 변화로 보답할 것

본보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정책이나 경력을 소개하고 싶은 출마자는 이메일(jmaeil@hanmail.net)로 보내주면 지면이 허락하는 한 게재해드릴 예정입니다. 인터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보는 출마자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남원시장에 출마한 이정린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입니다.

**Q. 후보자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 남원에서 태어나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16년 동안 시민 곁을 지켜온 이정린입니다. 남원시의원 8년, 전북도의원 8년을 거치며 남원의 예산과 행정, 농업과 교육, 복지과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뤄왔습니다. 저는 말보다 성과로 증명해 온 사람입니다. 남원 뚝 도비 1,000억 시대를 열었던 경험과 실행력으로, 이제는 남원의 미래 성장판을 다시 짜는 준비된 시장이 되었습니다.

**Q.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 지금 남원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행정 불신이라는 복합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더는 보여주지 못할 행정과 단기 처방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원은 농업도 문화도 지리산도 공공의료도 잠재력이 큰 도시인데 그것이 시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남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책임지고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는 절박함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Q. 후보 본인의 강점으로 내세우는 부분은?**

- 제 가장 큰 강점은 남원의 현실을 말이나 나라 몸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업 경영인 출신으로 농민의 땀과 눈물을 잘 알고, 남원이 어려울 때는 물러서지 않고 앞에서 싸워왔습니다. 또한 간병비 지원 입학지원 등 시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보여주기보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남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책임 지고 구조 바꿔야 할 때**

**지난 16년, 남원의 뚝 키우고 시민 삶에 필요한 기반 넓혀**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 시민 체감 성장이 '중점'**

**공공의료 중심도시 조성 농업예산 30% 확대 등 추진**

변화, 그리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남원을 바꿀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Q. 지난 의정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 지난 16년은 남원의 뚝을 키우고 시민 삶에 필요한 기반을 넓힌 시간이었습니다. 도비 1,000억원 시대를 열며 농업, 교육, 복지, 공공의료 분야 예산을 확대했고, 남원의료원 운영비 지원, 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 교육 환경 정비 등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해왔습니다. 또한 간병비 지원 입학지원 등 생활민첩형 제도 개선과 조례 발의를 통해 시민의 일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써왔습니다.



세우는 구조개혁의 문제로 봅니다. 산업과 일자리로 정착 기반을 만들고 성과 중심 예산으로 재정을 바로 세우며,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Q. 그동안 지역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공헌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지역에 대한 공헌은 구호가 아니라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 예산 109억원을 확보해 농업 현장의 불안을 줄였고, 남원의료원 매년 도비 30억원 지원으로 공공의료 기반을 지켜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과 IB 기반, 국악예술고 특음실 조성에 힘썼고, 간병비·입학지원 등 생활민첩형 조례 발의로 시민 부담을 덜었습니다. 춘향제 도비 5억 증액을 이끌어 문화관광 기반을 키운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 저의 정책 방향은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입니다. 행정은 주요 정책과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고, 예산·인사·민간위탁의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또 읍면동 행복지수를 반영한 성과중심 예산 운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이 가도록 하고, 불필요한 영역은 줄여 행정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 공공의료, 농업, 체류형 관광을 남원의 핵심 성장축으로 키워 남원형 발전모델을 만들겠습니다.

**Q. 당선되면 꼭 하고 싶은 일 3가지는?**

- 첫째, 공공의대와 KAIST AI 공공의료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해 남원을 공공의료와 미래의료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농업예산 30% 확대와 가계안정기금 300억 확충, 남원시·농협 공동유통체계 구축으로 농민이 제값 받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리산과 공공医료를 연결한 회복체류 도시 전략으로 치유·웰니스·체류형 관광을 키워 지역경제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남원의 미래 먹거리이자 정주 기반이라고 확신합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한다면?**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남원을 가장 잘 알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남원이 어려울 때마다 현장에서 함께했고, 말보다 성과로 저를 증명해왔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실질적인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 농민이 웃는 남원, 청년이 돌아오는 남원, 머무는 관광도시 남원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남원을 가장 잘 아는 준비된 일꾼 이정린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0만호기자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시민 삶을 실제로 바꾸는 결과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해왔습니다.

**Q. 후보 본인과 출마 지역과의 관계를 말씀해주세요**

- 저와 남원의 관계는 단순한 연고가 아니라, 16년 동안 남원 현안을 직접 책임져온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 8년, 도의원 8년 동안 농업, 교육, 복지, 공공의료, 지역개발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뤄왔고, 시민들의 요구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저는 남원을 밖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원 안에서 시민과 함께 문제를 겪고 해법을

만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원의 오늘을 가장 정확히 알고, 내일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Q. 출마지역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지요?**

- 남원의 가장 큰 과제는 인구소멸, 재정위기, 청량도 추락이라는 3중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재정 여력은 줄고, 행정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지 못하면 어떤 사업도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원의 과제를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사람·재정·행정을 함께 바로

